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내가 가진 의(義)

[빌 3: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육에 갇힌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기뻐했고(빌 2:17)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을 보인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원천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건강도, 돈도, 육신의 아름다움도, 쾌락도, 세상 권세도 다 일시적이며 어느 날 없어지는 것들이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에도 그것들은 참 기쁨이 되지 못한다. 참 기쁨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평안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쁨은 기쁨 후에, 아니 기쁨 중에도, 때때로 슬픔과 허전함이 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유익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다. 모든 슬픔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이다. 죄가 없는 천국은 기쁨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영원히,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표현한다. 진리의 교훈은, 비록 이전부터 잘 아는 내용일지라도, 귀하고 안전하다. 새로운 교훈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다. 그런 점에서 옛것, 곧 잘 아는 성경적 교훈이 안전하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은 도덕성이 없고 남을 물어뜯듯이 해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다. 이단자들은 사상적 변질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정당하게 교리적 토론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형제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폭력적이다. ‘손(損)할례당’이라는 원어(카타토메)는 ‘절단자’라는 뜻으로 할례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몸만 상하게 한 자, 즉 거짓 할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 한 말이라고 본다. 그들은 참 경건도 도덕성도 없는 자들이었다. 성도들은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3절] **하나님의 성령(靈)으로 봉사하며(에배하며)(KJV, NASB, NIV)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의 참 뜻은 마음의 성결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중생(重生)과 성화(聖化)를 상징하였다고 본다. 참으로 중생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에배하는 자들이다. 참된 에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 또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성도는 자신들이 죄악되고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아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의(義)와 거룩과 완전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위로와 힘과 기쁨이시기 때문이다.

[4-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저 율법주의 교사들처럼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이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 족속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외적으로는 흠 없는 자이었고 열심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자이었다.

[7-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혹은 '쓰레기'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즉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혈통,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義) 등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혹은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한다. 사람의 외모, 학력, 재산, 건강, 가문, 경력, 사회 신분 등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구약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무서운 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비천해질 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더욱이, 그것들은 신앙에 방해거리이다. 그것들은 사람을 교만케 만들고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쓰레기같이 여겼다.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세상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말한다. 성도가 가진 의(義)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이고 기독교의 진수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해설되고 강조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세상것들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요일 2:15-17).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데마처럼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딤후 4:10).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마 10:38; 눅 14:26-27, 33).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갈 6:14).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자. 성도의 기쁨은 헛된 세상것들 때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단들을 삼가야 한다. 그들은 사상적

변질을 가져오고 구원 대신 멸망으로 이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며(고후 11:3-4, 13-15) 신적 구주 예수님과 대속 사역을 부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며 멸망케 할 이단들이다(갈 1:6-9; 벵후 2:1). 또 그들은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는 성도를 비방하고 해친다. 그것은 자신이 이단인 증거다. 당시 유대교인들, 그 후 천주교인들, 이슬람 교인들, 각종 이단들이 그러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이다(롬 3:21-24; 10:2-4; 갈 2:1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지식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내용이다. 이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만한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에 불과하다.

주일오후설교 |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2:8-9]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전통사본)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會)라.

주께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며 오직 그 하나님께서만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또 주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시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요 11:25). 우리가 그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활의 주께서는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 목사의 계명 순종과 충성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셨다. 주께서는 우리의 계명 순종과 충성을 아신다. 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것이다. 사도행전 14:22,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14,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비록 서머나 교회의 목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평가하셨다. 인생의 참된 부요는 물질적인 데 있지 않

고 영적인 데 있다. 물질적인 가치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영원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셨다 (눅 12:21). 또 가난한 자들이 믿음의 좋은 경우가 많다.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고 말했다 (약 2:5).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를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며 사는 자이다.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았다. 구약교회는 매우 타락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또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구약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실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고 사탄의 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참 교회에 속하겠는가? 그들은 분명히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의 목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야 했다. 고난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보내시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마 10:28),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 말하였다(고후 5:1).

서머나 교회에는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것이며 마귀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 교회의 목사가 견고히 섰음에도 불

구하고 그 교회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의 환난은 서머나 교회에게 닥칠 문자적으로 10일 간의 환난이든지 혹은 상징적으로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킬 것이다.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영속적이지 않고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충성은 죽기 전까지는 증명될 수 없을 것이다. 충성은 죽음을 통해 참으로 증명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11, “또 여러 형제[구원받은 성도들]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제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확실한 표이다. 물론 참 하나님, 곧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한 순교와 충성만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

주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생명의 면류관은 면류관의 종류들 중 하나라기보다 생명의 영광 혹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일 것이다. 죽기까지 참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는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충성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게는 영생의 영광이 약속되지 않는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모든 내용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형벌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8,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

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치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 그리고 순종과 충성의 삶을 동반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부요하신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눅 2:24; 마 17:27; 21:2-3; 18-19). 지상 교회는 항상 고난받고 궁핍한 교회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탄의 종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고 투옥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하고(요 16:33)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벧전 5:9).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충성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주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히 13:13). 주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다(요 11:25). 요한계시록 20장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에 대해 증거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수요일 설교 열방이 황폐케 될 것

[슘 2:1-3] 수치를 모르는(로 니코사프[사모함을 받지 않는(KJV, NKJV), 수치를 당치 않는(NASB)] 백성아, 모일지이다. 모일지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 . .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교만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겠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것이다.

[4-7절]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 . .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땅 서남쪽 해변의 블레셋 사람들, 곧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등의 거민들을 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 땅은 쓸쓸하고 적막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양떼의 초장, 목자들의 움, 양떼의 우리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을 돌아보셔서 그 사로잡힘을

돌이키시며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8-11절] 내가 모압의 휘방과 암몬 자손의 . . .

하나님께서서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자손들의 땅과 암몬 자손들의 땅들도 황폐케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기 때문이다. 장차 모압 자손들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들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진(衰盡)케 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때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멸망의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참 신앙의 부흥이 이방 세계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12-15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륙을 . . .

하나님께서서는 남방의 구스 사람들과 북방의 앗수르 사람들도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칼에 살륙을 당할 것이다. 그 성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온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구스와 앗수르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시고 황폐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쇠진할 것이다. 세상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과 헛된 종교 때문일 것이다(10-11절).

둘째로,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멸망할 세상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7, 9절).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3절). 그들은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11절). 그들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3절).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한다. 우리는 경건과 의를 구해야 한다.